

## 나날이 향기로운 소식을 전해주시길

나누는 것으로 풍요로움이 더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듯 맑고 향기로운 공덕을 성실한 마음으로 나누어온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불국토를 위해 진력해온 한줄의 기사마저도 많은 불자들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생명을 살리는 매체로 발전해온 것은 굳은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천년의 시간을 늘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와 같이 불법홍포의 자리에서 진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사부대중의 신심과 열정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나날이 행복을 전하는 정론이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